

간척지 최고품질 벼 품종별 수량성 및 품질

최창환^{1*}, 김갑철¹, 소순영¹, 이인석¹, 이덕렬¹, 조승현¹, 이송이¹, 이기권¹

¹전라북도 익산시 서동로 413 전라북도농업기술원

[서론]

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쌀 고품질화 유도 및 간척지 활용 방안 등을 포함한 「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」을 추진함에 따라 국내에서 육성된 최고품질 벼 품종에 대한 전북지역 간척지 적합성을 검정하고 선발하여 RPC연계 최고품질 브랜드로 개발하고자 본 시험을 수행하였다.

[재료 및 방법]

본 시험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김제지역(진봉), 부안지역(계화)에서 실시하였다. 시험품종은 최고품질 벼인 영호진미 등 6품종과 신동진을 대비품종으로 사용하였으며, 이앙은 5월 30일에 30일묘를 30×14cm로 기계 이앙하였다. 질소, 인산, 칼리 시비량은 10a당 9-4.5-5.7kg이었으며, 질소는 기비, 분얼비, 수비를 각각 50%, 20%, 30%, 칼리는 기비, 수비를 70%, 30%로 나누어 사용하였고, 인산은 전량기비로 사용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품종별 출수기는 수광이 김제지역과 부안지역에서 각각 8월 9일과 8월10일로 가장 빨랐으며, 영호진미는 각각 8월 18일과 8월19일로 가장 늦었다. 주당수수는 6개 시험품종이 대비품종인 신동진보다 두 지역 모두 같거나 많은 경향이였다. 등숙비율은 김제지역에서 시험품종이 89.7%~93.7% 수준으로 신동진 94.0%보다 낮았으나 부안지역에서는 현품, 호품, 수광이 각각 93.2%, 93.1%, 94.4%로 신동진 92.6%보다 높았다. 10a당 쌀수량은 김제지역에서 호품과 수광이 각각 597kg, 563kg으로 신동진 562kg보다 많았고, 부안지역에서는 현품과 호품이 각각 625kg, 591kg으로 신동진 583kg보다 많았다. 완전미율은 김제지역에서 영호진미 등 4품종이 94.1%~97.1%로 신동진 93.2%보다 높았으며, 부안지역에서는 수광 등 3품종이 94.7%~95.8%로 신동진91.3%보다 높았다. 10a당 완전미 수량은 김제지역에서 호품 등 4품종이 530kg~543kg으로 신동진 524kg보다 많았으며, 부안지역에서는 영호진미와 현품이 각각 538kg, 567kg으로 신동진 532kg보다 높았다. 단백질 함량은 김제지역에서 해품과 수광이 각각 5.0%, 5.1%로 신동진 5.2%보다 낮았고, 부안지역에서는 호품과 수광이 각각 5.7%, 5.6%로 신동진 5.7%과 비슷하였다. 따라서 완전미 수량 및 단백질 함량으로 감안한 간척지 적응 최고품질 벼 품종은 김제지역에서 수광이 적합하였으며, 지역에 따른 적응성이 다름에 따라 부안지역에서 추후 보완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.

[사사]

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아젠다 사업(과제번호: PJ01168404)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다

*주저자: Tel. 063-290-6071, E-mail. chang7131@korea.kr